



이철우 도지사가 (가운데) 경북 청년기업 창업기업 살리기 발 벗고 나섰다. /경북도

경북도, 청년·창업기업 살리기 '앞장'

업무추진비 중 일부로 제품 의무구매

일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청년기업과 창업초기기업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26일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맞춰,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경북도 차원의 청년 및 창업기업 제품 의무구매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경북도 부서장 이상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청년 및 창업초기기업 제품에 사용토록 하고, 도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념품, 판촉물 등을 구입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중 52%가 3년 안에 폐업하고 있으며, 경북도 자체 조사에서도 청년창업자 중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기업이 7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청년기업과 창업초기기업은 당장의 내

경북도, 16년간 귀농귀촌 1위 달성

매년 귀농인구 3000명 이상
시설채소 등 고소득 작물 발달
멘토·선도농가 전국서 최대



경북도가 귀농귀촌에서 16년간 1위를 고수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는 2136가구 3036명이 귀농해 전국 귀농 1만1422가구(1만6181명)의 18.7%를 차지했다.

이로써 경북도는 통계조사시작된 2004년부터 16년간 1위를 유지했다.

경북도는 2013년 이후 매년 귀농인구가 3000명을 넘고 있다.

시도별 귀농 가구는 경북이 2136가구로 16년 연속 가장 많고 전남 2014가구, 경남 1315가구, 전북 131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 가운데는 의성군이 173명(전국 2위), 상주시가 171명(전국 3위)

을 기록하는 등 전국 상위 5곳 중 경북이 2곳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귀농 가구의 연령대는 50대가 33.2%로 가장 많았고 60대 25.9%, 30대 이하 21.1%, 40대 13.4% 순이다.

경북의 귀촌가구는 3만9229가구로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전년보다 729가구가 늘어 전국 귀촌가구가 전년대비 1만683가구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경북도는 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귀농가구가 많은 이유는 과수와 시설채소, 축산 등 고소득 작물이 발달해 농업 소득이 높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

(3만5341명)와 선도농가(17만5000호)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체계적 정책자금 지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박람회 등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유치 홍보 등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97년 구제금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귀농귀촌 가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는 도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귀농정착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로, 농촌지역 인구증가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동네방네

화순군, 동구리 호수공원 편의·경관 개선

화순군이 5억 원을 들여 화순 대표 근린공원인 동구리 호수공원을 새롭게 단장한다.



화순군 동구리 호수

군은 이용객 편의 향상과 노후 목재 데크 교체, 산책로 정비, 포토존·기상 안내판·텍스트 조형물 설치, 진입 광장 정비 등 공원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산책로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이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경관 조성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특히, 산책로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이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경관 조성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안동시, 농촌마을개발사업 연이어 선정

안동시가 각종 농촌마을개발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업으로, 시는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태극권역, 몽실권역 등 5개소를 완공했으며, 북후면 웅천리, 도산면 운혜리 등 7개소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그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각종 농촌마을개발사업 공모에 연이어 선정되며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1월 정부의 생활SOC 개발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 계획에 따라 건설과에 농촌활력TF팀을 신설했고, 국비확보와 사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농촌마을개발사업은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문화·복지 기능 향상을 위한 사

광주천으로 나선 이용섭 시장 "시민 불편체감"

아리랑물길 사업 일대 자전거 체험
2022년까지 380억 투입해 환경정비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개' 시민에 소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천 아리랑물길 환경정화사업이 추진되는 일대를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개'를 타고 점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천 아리랑물길 사업이 추진되는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돌며 직접 점검했다.

이 시장은 지난 27일 오전 광주천과 영산강이 합류하는 지점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앞 두물머리까지 약 6km 구간을 자전거로 둘러봤다.

이번 점검은 '광주천 아리랑물길 환경정비사업'의 착수를 앞두고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체감하고 보완점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천 아리랑물길 환경정비사업'은 이용섭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광주천에 생태·친수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의 대표 휴식처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80억원을 투입해 광주천 수량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42명의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천 아리랑 물길 조성단'을 통해 조성 방안을 논의

해왔으며,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광주천 아리랑물길 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이 시장은 7월 첫선을 보일 예정인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개'를 타고 현장을 돌아보며 시민들에게 타랑개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기도 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장성군, 33개·869억 규모 공모사업 유치

민선7기 2년이 지나는 장성군이 국가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을 유치하며 주목받고 있다.

장성군은 민선7기 전반기에만 총 33개 사업 869억4500만원(국도비 포함) 규모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6월 11일에는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가 성공했다.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직접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부지 매입비 포함 약 35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또한 군은 116억원(국비 49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과 70억원 규모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도 선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튼실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수상 실적도 돋보인다. 민선7기 동안 총 45개 분야 수상으로 상사업비 6억7000만원, 시상금 8500만원,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5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사진)가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했다.

또 옐로우시티 황금과일 생산단지 육성 전국 최초 과수 전정 기술지원단 운영 장성 미래농업대학을 통한 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부산시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 운영

부산시가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조성한 '부산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로써 해양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기업, 미래인재, 첨단기술 간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부산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은 부산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인 '미래해양도시 부산의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동삼혁신지구의 해양수산분야 이전 공공기관의 연구역량을 지역기업으로 확산해 부산의 전통 해양산업을 첨단 해양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핵심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부산=허희원 기자 bsmorning@

오늘의 날씨

6월 29일(월)
음력: 5월 9일

수도권 날씨
29~2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14 | 해질 / 19:57

연천 19/30
동두천 19/30
가평 19/29
양평 20/29
수원 20/28
용인 20/28
평택 19/29
백령도 18/24
파주 19/29
서울 21/29
인천 20/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